

# 幼年期의 올바른 性指導

明知大學 教授

金 英 穆

있도록 꾸며보도록 하겠다.

## 1. 序 言

흔히 父母나 指導者들은 그들의 子女나 學生들의 性問題를 禁忌視하거나 고의적으로 忌避해온 것이 事實이었다. 아이들은 날마다 그들이 겪는 알고 싶은 일들을 對話를 통해서 議論하고 그러한 歡待속에서 自身을 定義하기 爲한 莫然한 期待를 걸지만 어른들은 한결같이 子女들을 自己中心型에다 묶어놓고 累積된 과거의 因襲을 傳授하거나 年長者로서의 道德的 눈금에다 맞춰 키우려는 態度에 反撥을 느끼고 있다.

事實 자라나는 過程속의 子女들의 性的 行動은 父母나 指導者가 바라는 理想型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라면서 변하고, 변하면서 自身을 擴大해가기 때문이다. 換言하면 그들은 때어나면서부터 性的 存在로 成長하기 때문에 變化를 통해 지금까지의 性的 幻想의인 自己中心 (Identicality) 으로 부터 相互性 (Mutuality) 이라는 人間關係로 轉換하기 위하여 成長의 軸을 調整하고 있다.

그러므로 父母나 指導者들은 그들의 子女들에 대해 그들이 품은 性的 存在를 깊이 認定해 주어야 하며, 性的 存在로서의 成長意識이 一般的類型과 綿密히 關聯되어 進步的으로 發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期待되는 愛情問題에 對해 分明한 認識과 合理的이고 責任있는 行動을 決定할 수 있는 能力을 性教育을 통해서 길러주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갓난아기로부터 幼稚園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人間의 基本的 行動變化에 대해 愛情的 價値觀을 形成해야할 基礎 年齡層을 爲해 그들의 父母나 教師가 直接 活用할 수

## 2. 어린이 性教育의 目標

### 가. 幼兒期 性教育의 目標

幼兒期 性教育의 目標은 愛情있는 人間을 위한 愛情的 바탕을 기르는데 있다. 따라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尊重하는 愛情있는 人間으로 키우기 위해 그 根據와 바탕을 父母의 따뜻한 關心을 통해 확실히 심어주고 다지는 教育이어야 한다.

父母의 사랑은 곧 接觸이다. 幼兒期는 人間의 性格形成이 이루어지는 重大한 시기이므로 <사랑의 接觸>을 통해 人間으로서 살아갈 모든 바탕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幼兒期 性教育의 目標은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愛情을 심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나. 兒童期 性教育의 目標

精神發達面에서 볼 때 兒童期는 무궁한 好奇心의 연속이다. 따라서 兒童期 性教育의 目標은 好奇心으로 시작된 어린이의 性的 關心과 疑問에 대해 科學的 知識에 토대를 둔 男女의 役割, 性的 機能等에 대하여 명료한 解答를 주는데 있다. 여기서 특히 注意할 점은 兒童期는 好奇心이 강한 반면 그 好奇心을 模倣하고 싶은 欲求가 가장 강한 시기이므로 너무 兒童의 年齡이나 智力에 맞지 않는 지나친 性知識은 오히려 나쁜 結果를 招來하기 쉬우며, 무조건 <모른다>라는 어른들의 冷待를 받을 때 어린이들은 絶望을 수 없는 不安感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兒童期의 性教育은 어린이의 精神的·肉體的 成長發達에 따른 性知識을 土臺로 적절

히 균형을 맞추어 나감으로써 適應할 수 있는 길을 摸索해 나가야 할 것이다. 兒童期 性教育의 具體的 目的은 아래와 같다.

1) 家庭 및 社會生活에 있어서 사랑과 相互理解가 和睦한 關係를 이루게 하는데 基本이 된다는 점을 認識시킨다.

2) 스스로 한 行動은 자기가 責任진다는 決行意識을 賦與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家庭生活와 社會關係에 크게 공헌 한다는 보람을 증진시킨다.

3) 兒童의 發育, 특히 性的 發達에 있어서의 家庭의 役割을 理解토록 한다.

4) 兒童들로 하여금 家庭과 社會의 유능한 員이 되기 위해 필요한 價値觀을 樹立토록 한다.

5) 決斷에 必要한 一체의 基本要素를 具備토록 한다.

6) 兒童들로 하여금 他們 속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일어날 身體的·精神의 變化와 이러한 變化가 他們 身體發育에 미치는 影響을 理解시킨다.

7) 兒童들로 하여금 性的인 人間이란 全體의 存在의 重要하고 有機的인 一부분이라는 點을 理解시키고 性的에 對해 진정한 態度를 갖게 한다.

8) 男子나 女子의 몸가짐이 社會的으로 다르다는 點을 認識시킨다.

9) 兒童으로 하여금 장차 자라서 結婚 또는 父母의 役割을 할 수 있도록 未來를 準備시킨다.

### 3. 어린이 性意識의 發達過程과 그 特徵

性教育은 父母의 關心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에게 性을 가르치는 일은 어린이가 지닌 精神的·肉體的 發達과 特徵에 맞춰 決定해야 할 問題이기 때문이다. 成長過程속의 特徵과 性的 反應을 無視한 性教育은 오히려 나쁜 結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發達過程과 特徵을 熟知할 必要가 있다.

#### 가. 嬰·乳兒期의 特徵

1) 1살: 젖은 기저귀와 마른 기저귀에 대한

反應이 빨라진다. 소위 幼兒性慾이 發動되는 시기이므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바탕으로 指導해야 한다.

行動은 웃고 울고 놀라는 것으로 限定된다.

2) 2살: 눈에 비치는 치마나 바지, 또는 머리모양을 보고 남·녀를 區別할 줄 안다. 形態的인 特徵을 보고 異性을 判別하는 能力이 形成된다. 性器를 알아본다. 옷을 벗기면 곧잘 성기를 만진다.

엄마와 아빠는 각각 性器構造가 다르기 때문에 소변보는 姿勢가 다르다는 점을 눈빛으로 判斷한다.

3) 3살: 집안 식구 가운데 엄마·아빠, 그리고 오빠·누나는 그들의 性別에 따라 오줌누는 姿勢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自身이 알고 있는 느낌을 서툰 말로써 表現하려고 애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아이는 서서 오줌을 누려고 배를 쓰며, 남자아이는 누나처럼 앉아서 누르고 억지를 쓰는 장난끼가 나타나기도 한다.

4) 4살: 몸가운데서 먼저 배꼽을 알아보며 이를 쳐다보고 손가락으로 만지기를 즐긴다. 놀라면 눈이 둥그래지고 언짢으면 性器를 붙잡는다. 화가 나면 앉은 채로 소변을 보고 대변까지 본다. 가끔 소꿉친구끼리 모이면 서로 生殖器를 내어 보이기도 하고 꺾꺾대며 웃고 장난을 친다. 집안 식구중 어른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상한 關心을 갖게 되고 애써 변소문을 여는 짓궂은 장난을 즐긴다.

#### 나. 幼稚園期의 特徵

1) 5살: 갑자기 수줍어 하는 버릇이 늘면서 옷갈아 입는 일을 남이 보는 앞에서 하기 싫어한다.

엄마와 함께 沐浴湯에 가면 우선 물을 보고 놀라고 그다음엔 視線이 상대방 어른의 局部를 향해 쏠리기 시작한다. 그다음 자신의 것을 쳐다보고 한숨을 내뿜는다. 沐浴湯에 다녀온 이후부터 「나는 왜 자지에 털이 없어?」, 「왜 엄마처럼 털이 없어?」하는 등 어른의 몸과 자신의 몸의 構造를 比較하며 質問을 자주 하게 된다. 그리고 언제 엄마·아빠처럼 그런 것이 생기느냐고 꼬치 꼬치 캐물게 되며, 나중에는 갑자기

「나는 어디서 왔어?」하고 〈誕生〉에 관한 막연한 質問을 한다.

아버지의 役割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어머니의 하는 일에 關心을 보이기 始作한다.

2) 6 살: 身體上의 構造에서부터 男女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意識하고, 또 이를 再認識하는 뜻에서 간혹 난처한 質問을 한다. 또한 어머니나 누나가 使用하는 블래지어를 방탄 조끼처럼 걸치고 방안을 서성대기 좋아하며, 아빠의 모자나 파이프를 입에 물고 어른 흉내를 낸다.

소꿉장난이 늘면서 각시놀이, 병원놀이, 가정놀이 등의 性的인 놀이를 즐기게 된다. 어머니는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되고, 또 낳는지 소위 妊娠과 出産에 대한 호기심이 강해지며, 가끔 골목에서 개의 交尾現場을 본다든지, 닭이 알을 낳는 일이라든지, 家畜의 出産에 神經을 쓴다.

집에서 어머니의 젖가슴을 만지는 일이 늘고 아빠의 수염이나 고추를 만질려고 곧잘 덤빈다. 이런 關心에 대해 어른들이 야단을 치면 굉장히 싫어한다. 무안당할 일을 즐기고도 무안당하는 일을 싫어하며, 그것을 꾸준히 反復하고 싶어한다.

#### 4. 性教育의 時期

性教育을 언제부터 始作할 것인가에 대한 見解와 主張은 學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어떤 學者는 어머니가 아기를 妊娠했을 때부터라고 主張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學齡前期부터라고 異論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性教育이 全人教育의 標本이라는 점에서 出生時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繼續된다는 意見이 압도적이다.

그렇다면 性教育은 언제부터 始作할 것인가? 胎教라는 말이 있지만 眞正한 性教育은 기저귀를 갈아 칠 때부터라고 할 것이다. 이 時期는 心理的인 면에서 人間의 人格形成의 바탕을 마련하는 重大한 時期이며, 父母의 따뜻한 保護와 關心속에 아이가 얼마만큼 人間의인 원만한 性格의 바탕을 이루느냐, 못이루느냐를 좌우하는 時期이기 때문에 關心과 愛情接觸이 실재 없이 이루어지는 時期이다. 따라서 울음으로써

不決感을 호소하는 아기에게 清潔한 기저귀를 갈아 채워줌으로써 아기때부터 清潔한 感覺이 몸에 배이도록 하고 어린이로 하여금 身體機能의 作用을 自然스럽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특히 아기에게는 기저귀시절부터 이른바 〈幼兒性慾〉이란 것이 있으므로 기저귀를 대어주는 方法 하나라도 과도한 刺戟을 주지 않도록 神經을 써야 한다.

#### 5. 性教育의 担当者

性教育을 베푸는 場所나 機會에 따라 性教育者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開放的이어도 안되고 그렇다고 너무 閉鎖的이어도 안되는 神秘的인 교육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내키는대로 單獨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斷定하기는 困難하다.

어떤 父母는 우리나라와 같이 子女의 教育을 學校에만 依存하고 있는 實情에 비춰 〈그야 응당 學校 先生任이 가르쳐야지〉 하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어머니부터가 性教育者임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가르치든 그 方法과 教育的인 目的만은 研究되고 세련되어야 하며, 아이들의 心理, 身體發達, 慾求, 環境等を 研究분석하여 아이와 接觸이 많은 사람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옳다 하겠다.

實際로 初期 性教育의 境遇 家庭에서 어머니가 친절한 性教育者가 되고 學校에서는 担任先生任이나 養護教師가 性教育者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教育機關에서는 性教育의 必要性을 認定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學校에서의 性教育 프로그램에 對한 評價基準은 물론 資料부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教師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基本的인 姿勢마저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性教育問題를 專担한 책임있는 研究機關에다 교사들을 파견하여 性教育者로써 育成하는등 적극적인 政策反映이 있어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家庭에서는 父母가, 學校에서는 教師가, 社會에서는 책임있는 어른들이, 子女들은 그들 스스로가 올바른 態度를 가짐으로써 단순한 性生理와 衛生에만 그치는 教育이 아니라 異性을 보는 눈을 열어

주고 또 異性을 대하는 올바른 態度를 가르치며, 나가서는 眞實한 愛情을 익혀 미래의 幸福한 人生을 準備시키는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特別히 強調하고 싶은 것은 性教育을 위한 地域 社會團體의 役割이다. 性教育의 不毛地인 우리나라의 現狀況에서 全國적으로 分布되어 있고 날로 增加趨勢에 있는 〈유치원〉과 같은 社會機關이 先鋒에 서서 積極적으로 性教育活動에 參與하고 國內의 모든 環境과 機關에 속한 父母, 教師, 週日學校 반사, 幼稚園 선생님, 社會事業家, 教役者, 看護員, 學校行政家, 相談者, 健康教育士 등이 어린이들의 性教育者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性教育 担当者들이 性教育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며, 누가 하는 것인가에 대해 銘心해야 할 일은 〈安定된 것을 希望하면서 成長한 性教育者들도 역시 安定된 것을 希望하는 어린이들을 맡아 가르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使命感〉이며, 〈어린이들에게 變化가 없는 것은 非現實의이며 無知한 일이고, 또 거짓된 目的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어린이들은 自身의 變化에 대해 익숙하여야 하고 變化를 理解하고 征服하고 調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6. 性教育者의 姿勢와 役割

### 가. 性教育者의 姿勢

아이들이 자란다는 것은 아름다운 變化에 대해 계속 質問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變化에 대해 이를 責任진 性教育者에게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態度로 가르치느냐가 重要한 문제다. 무궁무진한 質問에 대해 어떻게 바르게 對答하느냐에 따라 性教育의 成敗가 左右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外國과 우리나라 專門家들의 見解를 종합하여 性教育者가 性에 관한 質問을 받았을 때 지녀야 할 基本的인 態度를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1) 무슨 質問이든지간에 질문에 대해 唐惶 하거나 先入觀을 가지는 態度는 옳지 않다. 答에 앞서 安定感을 주어야 한다.

2) 質問을 남이나 周圍의 탓으로 돌리지 말 것.

3) 적당히 얼버무리는 식의 거짓말을 가르치지 말고 事實을 사실대로 確實하게, 自然스럽게 理解가 가도록 가르친다.

4) 어린이를 작다고 깔보지 말고 하나의 人格體로 대해야 하며, 質問에 대해 화를 내거나 미리 막아버리는 態度는 큰 잘못이다.

5) 항상 質問의 動機를 把握하여 이를 토대로 對答한다.

6) 좋은 對答을 하겠다는 관심에 앞서 사랑과 信賴로써 지도자의 生活을 어린이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

7) 平素에 分別없는 말과 行動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8) 평소에 質問에 대비해서 豫備知識을 갖추어둘 것.

9) 어른들의 性的 環境을 함부로 露出하지 말 것.

### 나. 性教育者의 役割

1) 人格의 意味로써의 性的 高等性을 指導한다.

2) 清潔感을 토대로 한 性的 純潔性을 指導한다.

3) 生活을 통한 性的 自然感을 指導한다.

4) 言行一致로써 性的 信賴感을 指導한다.

5) 男女平等思想에 根據한 性的 同等性을 指導한다.

6) 合理的 性知識에 의한 性的 힘을 培養시킨다.

7) 量보다 質에 의한 性的 社會性을 指導한다.

8) 陽性的 方法에 의한 性的 떳떳함을 指導한다.